

나주시 '난자 냉동시술비' 첫 지원...출산 장려 정책 확대

난자 채취·동결비 최대 200만원 1회 한방 난임 치료 180만원 4개월 지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가 이번엔 여성들의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나주시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나주시는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晩婚)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하기 전에 난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늦은 나이에 결혼 또는 혼인을 앞둔 여

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나주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난소기능 저하(AMH 1.0미만)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도 4월부터 회당 최대 100만원씩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는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시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나해 7월부터 시행한 난임진단 검진비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검사 비용을 부부 합산 최대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여기에 난임 시술비는 횡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20만~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저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부부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4개월분을 지원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 지원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 철회를 촉구하며 미바에 다이ске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동복1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시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도심 하천 가꾼다

참여기관·시민단체 등 15개소 모집 하천정화활동, 꽃밭·꽃길가꾸기 등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광주 도심 하천 가꾸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에 참여할 기관·기업·시민단체 15곳을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이미 참여자를 밝힌 47개 기관과 함께 동구 용산동부터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점까지 총 12.2km 구간 62곳의 광주천 정화활동을 시작한다.

참여기관들은 분기별로 하천정화활동, 꽃밭·꽃길 가꾸기, 수질 개선활동, 외래종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불법행위 단속 및 환경캠페인·교육 등 각종 하천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시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 사업은 무단투기 폐기물·쓰레기 수거와 예초작업 등 참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미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우수 참여단체와 기관에는 연말 표창수여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환경공단이 광주천 가꾸기 우

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청 누리집 고사·공고(https://www.gwangju.go.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062-613-4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근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많은 기관·기업·시민단체가 광주천 가꾸기에 참여해 일상에 지친 시민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설립 업무 동시 추진

목포대·순천대 경쟁 단일 의대 설립 방침 지휘체계 조정

전남도가 목포·순천대 간 경쟁을 통한 단일 의대 설립 방침과 관련, 2명의 부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대유치·설립 추진단 지휘체계를 변경해 '국립 의대 설립 현실화'를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제 379회 임시회 기간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통합 의대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설립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된 것과 관련, "국립 의대 유치와 설립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 기존 의대유치추진단에 설립 업무를 포함해 의대유치·설립추진단으로 바꾸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업무별 지휘체제도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정된 의대유치·설립추진단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의대유치업무를 총괄하면서 지휘하고 정부부지사에게 의대설립·중앙부처 협조 업무를 맡도록 했다.

실무적으로는 보건복지국이 의대 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자치행정국이 의대 설립 지원 업무를 챙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기획실은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하면서 보고·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무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또 이날 도의원들의 갑작스런 국립 의대 추진 방침 변경과 관련, 통합 의대 설립에 필요한 법 제정의 어려움, 의료 취약지 의대 설립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공모 방식으로 단일 의대 입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호진(민중·나주 1) 의원 등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 설립을 신청하기 위한 지자체의 공모 권한이 없는 점과 '전남도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2021년) 비공백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지사, 농림장관에 현안 건의 AI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사업 등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 등 현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농축산업도 기후위기대응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및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공동 선도시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공모사업 선정 및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확대 지원 등에 대한 내년 국비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축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안·함평 일원에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日 "독도는 일본 땅" ...韓 "강력 항의"

"징용 배상 판결 수용 불가...한일 협력은 강화해야"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옹호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

을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차 번째'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차 번째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원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극히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면서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제릭스 빅길	선물라벨 x 셀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사과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 x 셀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감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감나무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임파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방향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맛있는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감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감나무	민업나무 가지없는 감나무	가지없는 민업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지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감을농원
모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동별 703-02-497271(예규주 정준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발전사업요지**
 - 발전소 명: (유)천사나눔태양광 발전사업 사업
 - 발전소 위치: 전남남도 산천군 지동읍 광평리 1661번지외 29필지 (총 30필지) (면적 1701-5, 1701-7, 1701-9, 1701-11, 1701-13, 1701-17, 1701-19, 1705-21, 1705-27, 1702, 1702-2, 1702-6, 1702-7, 1702-9, 1702-15, 1703-8, 1703-9, 1703-14, 1703-15, 1703-16, 1705-19, 1705-25, 1705-30, 1706-23, 1706-21, 1706-26, 1701, 1703, 1703-6, 1705-29)
 - 발전소 면적: 738,497㎡
 - 공고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7.9875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 운영기간: 2027. 01. 01. ~ 2046. 12. 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천사나눔태양광 대표이사 남정민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62-263-8211 팩스: 062-263-8212 E-Mail: ham0885@hanmail.net
- 발령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암태면 천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발전사업요지**
 - 발전소 명: (유)백룡산태양광 발전사업 사업
 - 발전소 위치: 전남남도 산천군 지동읍 광평리 1661번지외 31필지 (총 32필지) (면적 1616-6, 1616-8, 1616-2, 1616-4, 1620, 1620-2, 1621, 1621-2, 1622, 1622-2, 1622-5, 1617, 1617-2, 1617-4, 1617-6, 1618, 1618-4, 1619, 1619-2, 1619-4, 1619-10, 1619-2, 1619-3, 1619-4, 1619-5 / 내장리 1704-25 / 차동리 1976, 1976-2, 1977, 1977-2)
 - 발전소 면적: 740,863㎡
 - 공고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9.00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 운영기간: 2027. 01. 01. ~ 2046. 12. 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백룡산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일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5404-7841 팩스: 02-6261-9001 E-Mail: 218301@choco.kr
- 발령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암태면 천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전문

010-3605-50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200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4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주식회사 인천송도엔터테인먼트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3호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청산인 이상호

분할공고

2024. 4. 8. 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재산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 주식회사 매디시티빌딩을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해주실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신원산업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95, 2층 (쌍촌동)
사내이사 박종주

先州日報 지역안내

• 동 광 205-1200 • 동 송 269-1900 • 북광주 525-0761
• 신 안 222-8171 • 광 신 571-7669 • 호 지 269-7601
• 동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 동 광 673-98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동 통 222-8171

• 남 부 673-9836 • 북 은 651-1833 • 통 선 673-9836
• 동 통 673-9836 • 진 통 671-7276

• 경 선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순 통 376-7153 • 진 통 376-0511 • 통 양 603-0311
• 화 통 369-1625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화 남 952-0451 • 경 신 944-0444